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23.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급

2013. 06. 09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들을 귀를 주셔서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3:19~22]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인지 설명을 끝으로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상급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희한한 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정신병이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교회 밖에 세워두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요.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 열심 내어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두 말씀이 다 명령형입니다.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각각 명령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합니다. 전혀 열심 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으니 열심을 내어서 일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셔 들이면 열심 내어서 할 일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심을 내고, 지금 당장 회개하되 그것이 지속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두 낱말의 시제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2. 예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요, 사랑하시는 자들을 맞이든지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예, 그렇지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그 대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책망과 징계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책망하지 않고 더구나 징계는 어렵도 없지요. 그러나 책망과 징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특히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아주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현저한 허물이 있으면 책망하고 그대로 듣지 않으면 할 수 있다면 징

계하여 그 잘못을 고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가 아니고 필리아입니다. 아가페가 상대방의 반응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면, 필리아는 서로 주고받는 친교가 있는 사랑입니다. 형제우애라든지,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를 필리아 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가족적인, 혈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다 이런 사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망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답: 유명한 그림이 있지요?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무슨 대답이 있는가,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말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의 유명한 세상의 빛이라는 이 그림은, 화가의 친구들이 그림을 보고 편지를 주었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으니 화가가 깜박 잊고 잘못 그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헌트는, “이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네.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갈 수 없으시다네.” 후세에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사실인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참 암시하는 것이 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문을 열어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하실 모든 조처는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미 사망의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허락된 기회의 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생명을 모셔 들이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그렇게 문을 열라고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듣고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 들여야 할 것입니다.

4. 화가 헌터의 대답이 참 멋집니다. 문을 열면 예수께서 들어오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것이 함께 음식을 잡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답: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진정한 친교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식성이 비슷해야 참으로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기호가 전혀 다르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식당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여 먹고 값을 초청한 사람이 지불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계시록의 이 장면은 식당에 초청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곳은 집입니다. 식당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 식구들을 대접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식구들에게 예수 대접할 음식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5. 예수께서 대접하시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채식일까요? 혼식일까요?

답: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습니까? 저는 순 채식가이니까, 당연히 채식을 선택하겠

습니다만, 여기 예수께서 베푸실 음식은 그런 육신의 양식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9:1~6을 읽어볼까요?

[잠9:1~6]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2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린 상입니다. 여기 초대되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겠지요. 이제 이 상을 보니까 혼식인 것 같네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차리는 상에는 육류가 있고 와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음식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다 복음과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요. 이것은 구원의 음식입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뜻합니다. 포도주는 야인인데, 이것은 포도에서 나는 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포도즙도 야인이고 그것을 그냥 두어서 발효가 되어 술이 되었을 때도 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만찬에 올라오는 포도즙인데,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만찬에 발효된 포도즙인 술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복음을 생각하면 당장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이것을 순수한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는, 죄성도 없는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포도즙도 역시 알코올이 없는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요. 예수님의 피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옳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음식상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요6:53~5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께서는 이런 사실을 구약 잠언에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말은 바로 희생을 나타냅니다. 탕자 비유에도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일이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제 문을 열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생명과 명철을 얻어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 예, 목사님,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이 단순한 친교를 뜻하는 말이 아니군요. 거기에는 구속의 의미가 들어 있군요?

답: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또 예수님과 그를 영접한 사람이 일체가 된다는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예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서로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일체가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일체가 되는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식탁 친교를 해야 합니다.

7.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상급은 대단한 것 같네요.

답: 예, 앞의 여섯 교회들보다 좀 더 영광스러운 것 같지요.

[계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좌는 또한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이기 때문이지요. 그 보좌는 엄청 크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했을 때 보좌 위에 앉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좌 안에 앉는다고 했거든요. 여기 사용한 헬라어 전치사가 “위에”를 뜻하는 “에피”가 아니고 “안에”를 뜻하는 “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명예와 권세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밝혔습니다. 한 번 읽어 봅시다.

[엡2:4~6]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여기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 허락하신 상급과 같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 하겠지요.

8. 참 감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좌가 그렇게 크다는 말씀입니까?

답: 우리가 보좌의 크기를 모르지요. 이것이 상징적인 말씀만인지 또 실지로 그럴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징 쪽에 무게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탄불에 왕실 박물관에는 왕이 앉던 보좌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의자가 기다랗다 되어 있어요. 안내인의 설명은 거기에 왕비와 때로는 왕자가 함께 앉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보좌를 보고 성경에 함께 앉는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어떤 목사가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보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계시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앉아서 왕 노릇 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아마도 천년기간 동안 왕

노릇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왕 노릇하는 것을 상급으로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  
지요.

9.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궁합니다. 그렇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 살펴보았  
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복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 예,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우선 일곱 교회는 요한이 계시의 편지를 쓴 당시로는 소아시아  
에 있는 일곱 도시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  
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복음의  
진행을 교회에게 맡겼는데, 그 일곱 교회의 이름과 위치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진  
행되는 교회의 역사와 사업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며 교회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목사님이 일곱 교회들이 있는 도시의 이름의 뜻과 역사  
적 연대를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10. 예, 에베소는 부러워할만한, 또는 제일이라는 뜻으로, 사도시대로부터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쯤인 기원 100년까지의 역사적 교회를 대표하고,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으로 핏  
박을 할수록 더욱 향기를 발하는 교회 시대인 100년경부터 콘스탄틴이 기독교 자유를 선언한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313년경까지이고, 버가모는 성채 또는 높이 들린다는 뜻인데, 콘스탄틴  
의 개종으로 교회가 국교가 되며 세상에 추앙을 받아 세속화하기 시작하는 시대의 교회로서  
313년부터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에 의하여 로마 감독이 모든 기독교의 머리가  
된다는 칙령이 시행될 수 있게 된 538년경까지이고, 두아디라는 수고의 향기라는 뜻으로 이것  
은 지하교회의 고충을 드러내는 이름인데, 이 기간은 교권로마의 전성기로 538년부터 1517년  
이나, 1798년까지의 교회 기간이고요, 사데는 즐거움의 찬송, 또는 남은 자, 남은 자의 도망  
등의 뜻이 있는데, 개혁 교회 시대인데 1517년부터 1798년까지나, 또는 1798년부터 1831년  
경까지에 해당됩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우애라는 뜻인데, 1798년부터 1844년경까지나 또는  
1831년부터 1844년까지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는 심판으로 의롭다고 선고된  
백성이라는 뜻인데, 정해진 심판의 시기인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지요.

답: 감사합니다. 잘 복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복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도시에 설립된 교회들의 내면적 사실을 통하  
여 구원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는 사실과 그렇게 전파할 때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실을 계시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1:19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본 것, 곧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해석이 역사주의적  
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가르쳐주시고 이 일곱 교회의 시대적 틀 안에서 계시록의 다른 예언들  
도 이해하도록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  
도록 하는 방도가 되기 때문이고, 또 예언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르게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11. 목사님, 그런데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도록 하는 방도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답: 예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13:19에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바울은 딤후1:18~20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너희로 징계를 받아 뉘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여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착한 양심과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언을 연구해야 하고 특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역사주의적 자세로 연구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위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잘 살펴서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연구할 때 우리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진리의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지요.

12.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을 많이 주셨군요. 즉 예언이 역사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과 그 예언을 기록한 성경이 참으로 믿을 수 있다는 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13. 옳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파선할 수 있고,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마귀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잖아요. 마태 24:23~25절을 한 번 읽읍시다.

[마24:24,25]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마귀에게 잡혀갈지 모릅니다. 마귀는 마귀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고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속습니다. 우리나라 애청자들이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속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제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다 살폈으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당연히 그래야지요.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4장 5장을 삽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중심 줄거리가 아니고 이 중심 줄거리를 잘 이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삽입시킨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면 4장 5장이 중심이고 이 중심된 장면을 보여주면서 역사적 사건이 누구에 의하여 지배되고 진행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미래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4장부터는 미래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또 중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역사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곱 교회 시대와 거의 동일한 역사적 연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시각의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이런 이해로 4장부터 살피도록 하지요.

14. 예, 목사님.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4장과 그 이후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청자들께서는 아마 한 번 듣고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니까, 반드시 무료로 드리는 CD를 요청하셔서 자주 반복해서 듣고 깊은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626-374-9480, 626-374-9480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답: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신 일곱 교회와 그 교회 시대에 대한 편지를 잘 살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잘 공부하고 확실히 깨달아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권고를 잘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예언의 지도를 따라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중에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